

# 정유미x최우식, 나영석PD 새 예능 '여름방학'으로 뭉쳤다

### 홈강스 리얼리티 프로그램...17일 첫 방송

### "어른들 위한 여름방학같은 프로그램 되었으면"

나영석 PD가 배우 정유미 최우식과 함께 새 예능프로그램 '여름방학'을 선보인다.

tvN 측은 2일 "오는 17일 오후 9시10분 새 예능 프로그램 '여름방학'이 처음 방송된다"라고 밝혔다. 배우 정유미와 최우식이 출연하며 나영석 PD와 이진주 PD가 연출을 맡는다.

'여름방학'은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낯선 곳에서 여행 같은

일상을 즐기며 지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어린이들의 홈강스 리얼리티다.

바쁘고 분주한 도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금요일 밤 힐링과 웃음을 책임질 예정이다.

정유미는 tvN '음식당'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인 바 있어 반가움을 더한다. 또한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

우 역을 완벽히 소화해내 호평을 받은 최우식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에 많은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첫 촬영을 앞둔 정유미와 최우식의 만남이 담겼다.

정유미와 최우식은 만나자마자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며 환한 웃음을 지어 흐뭇한 미소를 유발했다.

두 사람은 여름방학 동안 벌여질 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다가 하면, 서로 장난치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려 본 방송에서 펼쳐질 케미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여름방학' 연출을 맡은 이진주 PD는 "'여름방학'은 낯선 지방살

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며 일상을 살아갈 힘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라며 "어른이 되어도 삶에서 때때로 쉬어갈 수 있는 여름방학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분들께 지친 일상 속 여름방학과 같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평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정유미, 최우식 배우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캐스팅 계기를 전했다.

뉴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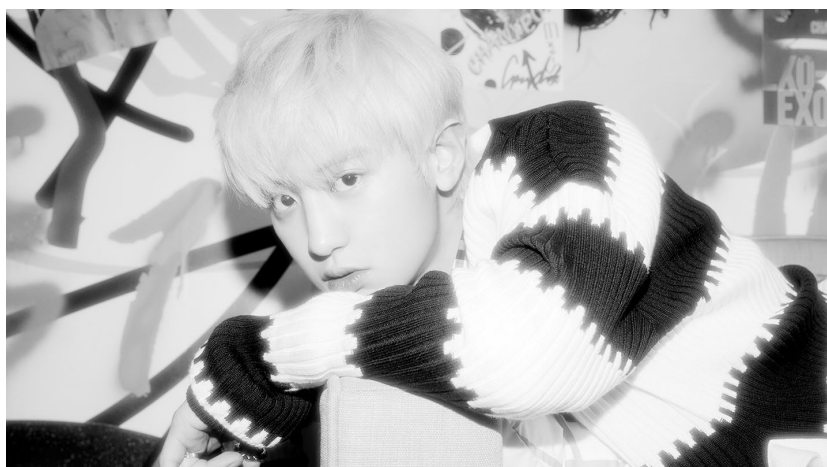
## 세훈&찬열, 첫 정규 타이틀 '10억뷰'...티저 이미지 공개

### 13일 앨범 발매

그룹 엑소 세훈&찬열(EXO-SC)이 첫 정규 앨범 타이틀 곡 '10억뷰'로 흥 넘치는 힙합 음악을 들려준다.

세훈&찬열의 첫 정규 앨범 '10억뷰'는 오는 13일 오후 6시 플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되며, 타이틀 곡 '10억뷰'를 비롯한 총 9트랙이 수록돼 있다.

타이틀 곡 '10억뷰'는 펑키한 기타 사운드와 디스코 리듬이 인상적인 힙합 장르 곡으로, 가사에는 사랑하는 연인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을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모습에 비유해 재치 있게 풀어



냈으며, 밀리언마켓 소속 보컬리스트 MOON(문)이 피쳐링으로 참여해 곡의 매력을 더했다.

또한 지난 2일 (시)에는 세훈&찬열 공식 홈페이지 및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소 계정을 통

해 찬열의 유쾌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티저 이미지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세훈&찬열의 첫 정규 앨범 '10억뷰'는 오는 13일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 '모범형사' 손현주, 상사 장승조와 불편한 첫 대면



'모범형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형사 손현주와 장승조의 아주 특별한 케미를 예고했다.

오는 6일 처음 방송되는 JTBC 새 월화드라마 '모범형사' (극본 최진원/연출 조남규)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사가 은폐된 하나의 진실을 추적하는 통쾌한 수사극으로 손현주와 장승조가 만들어낼 완벽한 형사 시너지가 바로 최고로 손꼽히는 기대 포인트다.

이에 '모범형사' 측은 4월 앞으로 다가온 첫 방송을 앞두고, 1년

간의 유직 끝에 서부경찰서로 복귀한 오지혁(장승조 분)과 그를 파트너로 맞이하게 된 강도창(손현주 분)의 황금의 순간을 미리 공개했다.

"서울 광수대 근무 평점 1등"이라는 우물쭈물(조희봉 분) 팀장의 소개로 등장한 오지혁, 서부 경찰서로 복귀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전입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오지혁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고, 그가 설마 파트너가 될 줄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강도창은 모든 상황이 황당하고 못마땅하다.

오지혁의 등장으로 형사 생활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감이 온 강도창. 그도 그럴 것이 서울 광수대에 있을 때 오지혁의 별명은 앞에 '대(大)'자가 붙어서 '대꿀통'이었다. 동료 형사의 사정은 상관없이 오로지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는 외골수이기 때문.

게다가 후배지만 직급은 자신보다 높아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다. 안 그래도 승진심사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형사 생활에 오지혁의 존재가 지뢰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형사에게 파트너는 부부나 같다는데,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을까.

제작진은 "'모범형사' 첫 방송에서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사 강도창과 오지혁이 파트너가 된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5년 전 어느 살인 사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첫 방송부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야기가 흡입력 있게 담길 예정이다. 황금의 파트너로 만나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두 형사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 이효리·윤아, 코로나19 시국 속 노래방 방문 논란

### "깊이 반성" 사과

가수 이효리와 소녀시대 윤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속 노래방 방문에 논란이 일 가운데, 두 사람 모두 이 일에 대해 사과했다.

2일 윤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 경솔했던 행동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모두가 힘들어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 생각과 판단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리 역시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어젯밤 아직 조심해야 하는 시국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요새 내가 너무 들떠서 생각이 깊지 못했다"며 "언니로서 윤아에게도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효리와 윤아는 각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효리는 윤아와 함께 압구정에 위치한 노래방에 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을 지켜보던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이 큰 유명인으로서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래방은 감염 우려가 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곳여서 더욱 많은 비판이 이어졌다.

댓글을 살펴보면 이효리는 함께 노래방을 방문한 지인에게 "노래방 오면 안 돼?"라 물었고, 윤아는 "마스크 잘 끼고 왔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끼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 가려던 두 사람은 '죄송하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뒤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해당 라이브 방송 영상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반응에 이효리는 윤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각각 사과문을 올리며 반성했음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 김민아, "부끄러운 언행 죄송,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



방송인 김민아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무리하고 부끄러운 언행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민아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 '왓더백 시즌2'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정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민아는 "시민분들과 영상통화

편의 완성도 높여 재계시...현재 영상 비공개

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활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했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회화화하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왓더백 시즌2'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생과 온라인 인터뷰를 가졌다.

이때 김민아는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어떻게 푸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하냐"라는 말을 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성희

롱'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 유튜브 채널 '왓더백' 코너 제작진은 1일 채널 공지사항에 "'왓더백'은 가방탈기라는 콘셉트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코너로서 기획되었고 시즌 2에서는 코로나19로 직접 촬영이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을 화면을 통해 비대면으로 만나 말씀을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출연자와 코너 진행자인 김민아 님께서 나누는 대화 중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해 해당 영상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 재계시 하고자 현재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설정해냈다"며 "채널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케이시, 신곡 '똑똑' 발매...조영수 작곡·피아노 연주



가수 케이시가 3개월 만에 더욱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돌아온다.

케이시는 2일 오후 6시 전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똑똑(TOCK TOCK)'을 발매한다.

'똑똑'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을 비에 비유한 곡으로 빛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영어 제목 'TOCK TOCK' 역시 '두드린다'를 의미하는 'Knock'와 'Tok'의 합성어로 중의적인 의미를 표현했다.

이 곡은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작곡가 조영수가 작곡하고, 진심을 담은 가사로 마음을 울리는 케이시가 작사에 참여하며 또 한 번 환상의 조합을 만들어냈다. 조영수는 작곡에 이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해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케이시가 목소리만으로 진한 여운을 더했다.

'똑똑'은 감성적인 60년대 스탠드드 재즈와 R&B의 만남 속에서 비가 오면 꼭 생각나는 정미 시즌 송은 물론 1년 365일 리스너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꾸준히 자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때가 좋았어' 진심이 담긴 노래 '가을밤 떠난 너' 이 마음이 찾아오면' 등을 발표한 케이시는 지금까지도 음원 차트 상위권을 통령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여성 보컬 부문, 제9회 2020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발라드부문 올해의 발견상, 2020년 제29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R&B 합참상을 휩쓸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케이시는 오늘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를 시작으로 컴백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 옥택연, 열애 인정 후 첫 SNS "서운했을 분들께 죄송"

가수 겸 배우 옥택연이 열애 소식 이후 처음으로 근황을 전했다.

옥택연은 지난 1일 밤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서운했을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떤 말로 인부 인사를 꺼내야할지 고민하다가 글이 늦어지게 된 것도 많이 미안해요"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이 걱정해주

시는 마음들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투피엔 활동과 배우 활동 모두 최선을 다해 잘 해낼 테니 계속 지켜봐주세요"라며 "항상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23일 옥택연이 비연예인 여성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측도 열애를 인정했다.

옥택연은 지난 2008년 그룹 2PM으로 데뷔해 가수과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룹 활동으로 '짐승'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편 드라마 '드림하이', '신데렐라 언니' 등에서는 상반된 모습으로 빈전 매력을 선사했다.